

‘성 요셉의 해’ 선포(2020년 12월 8일~2021년 12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지난 12월 8일(화)에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하고, 가톨릭교회는 앞으로 1년간 특별한 방법으로 요셉 성인의 삶과 영성을 기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님은 이날 발표한 교서 『아버지의 마음』(Patris corde)을 통해 “모든 신자가 성 요셉의 모범을 따르고, 하느님의 완전한 충실성 안에서 신앙적 삶을 강화하길 바라며”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109쪽)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1월 10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2년 1월 13일 서상필 요아킴 신부(31세)
- 1956년 1월 17일 박우철 바오로 신부(72세)
- 1998년 1월 14일 전용선 요한 신부(52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 ❶ 정규 미사 봉헌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상 제작 및 송출 인력 포함 20인 가능)
- ❷ 성당 내에서 대면 모임과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는 금지합니다.
- ❸ 성당 밖에서 하는 식사는 자제합니다.

교구청일람

갤러리1898 휴관안내 / 문의: 02)727-2336

휴관일정: 1월6일(수)~2월2일(화)

1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1월11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1-1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교우
교육기간: 2월3일~6월30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 회비: 10만원
신청기한: 1월29일(금)까지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
(www.catholicpolice.or.kr) 참조

1월 자살유가족을 위한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매월 세번째(토) 1월16일(토) 10시30분
곳: 가톨릭회관(명동) 4층 413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유가족 면담 및 문의: 02)727-249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선포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이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성인’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희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희년 기간: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2021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전날).

또한 교황청 내사원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간에 모든 신자에게 전대사를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전대사 교령을 보내왔습니다.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전대사 받는 조건 -

전대사의 통상 조건(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을 채우면서, 아래의 내용 가운데 하나를 실천한다.

(1) 교구장 주교가 지정한 성지와 성당 중에서 어느 곳이든 순례하고

- 첨부된 희년 주요 행사 중 한 가지에 참여하기
- 또는, 한국인 두 번째 사제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와 주모경 바치기

* 서울대교구 교구장 지정 순례 성지(성당): 광화문성지, 주교좌명동대성당, 가회동성당, 당고개순교성지, 삼성산성지, 새남터순교성지, 서소문밖네거리순교성지, 철두산순교성지, 종로성당, 종림동약현성당, 동대문성당, 수락산성당, 수유동성당, 신내동성당, 신천동성당, 이문동성당, 한강성당

(2) 성 김대건 사제의 유해나 유물 앞에서 알맞은 시간 동안 경건한 묵상을 한 뒤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를 마치기

(3) 노인, 병자,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도 모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되도록 빨리 세 가지 통상 조건을 채우겠다는 지향을 지니고, 김대건 성인의 상본 앞에서 희년 경축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켜 자신의 기도와 고통, 또는 힘겨운 삶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하기